

세계 기독교 AI 시대의 한국선교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vs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강의 개요

한철호 (미션파트너스)

전체 개요

이번 4번의 강의의 핵심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AI, 세계기독교시대, 한국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4가지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변화'다. 인류는 계속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단어가 적합한 시대가 있었다. 오늘이 그런 시대 중 하나일 것이다. 기독교는 더욱 그렇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의 종교가 아니다. 말 그대로 전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생겨나가 시작했다. 그 결과 길게는 2000년 짧게는 지난 200년 동안의 서구에 의한 선교의 시대가 마무리 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야 한다. AI 시대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에 앞서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한다. 지난 40년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선교는 이제 뒤돌아 보고 내다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4회의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준비되었다.

강의 1 : 패러다임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웨즈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세번 일어났다고 언급한다.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그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강의2: 트렌드

한국교회와 선교의 현상을 확인하고,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가 직면한 최근 세계선교의 7가지 트렌드를 확인한다

강의 3: 패러다임 이동의 실체

한국선교 패러다임 이동의 실체와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한 태도변화를 위한 신학적 모색을 확인한다

강의4: 반추하는 실천

책에서 길을 찾지만 해답은 현장에 있다. 한국선교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모색한다.

읽기자료 첨부

- 1) 하베스트. 2026어떤선교사를보낼것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교회 선교 패러다임 전환 (한철호)
- 2) 방콕포럼 종합리포트(2004~2025)(한철호)

